

# Kim Bien Hun

김 병 훈

오래 전부터 자연 안의 규칙적인 반복과 탈 이성적인 십리에 매료되어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물과 나무 그리고 돌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양새는 불규칙적으로 보이나 서서히 오랜 시간과 함께 규칙적으로 진화한다.

동물이나 균충이 기지는 보호색은 인간과 달리 원색적이지 않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자연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인의 법칙을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결코 스스로를 독립시키려 들지 않는다. 나무와 어울리고, 땅과 어울리고, 하늘과 어울리며 밤과 낮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며 그 안의 질서에 순응할 줄 안다.

애초 인간이라 불리는 자연 속 동물 역시 그러했을 텐데, 지금은 개인 스스로가 모두가 각진 모서리처럼 충돌할 것이다. 본래 인간은 타인과 수많은 사회 구성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므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각인시켜 왔다. 딱스의 패턴은 현대와 미래 그리고 근대를 이어주는 매개체다. 오랜 시간 영국은 새로운 대지와 대양을 탐험하면서 얻어온 고대 문명의 산물을 자신만의 역사 안에서 독창적으로 탄생시키려 노력하였다. 모든 평면 이미지의 기본형태인 점선 면으로 이루어진 딱스의 패턴은 마치 동물들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의 조화로움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현재와 미래적인 이미지들의 디지털 팩션으로 연상도기도 한다. 자연 속 반복과 규칙의 미학, 계절이 지나간 후 다시 돌아오듯이 죽음 뒤엔 새로운 시작이 또 있듯이 반복되며 진화하는 패턴의 힘은 오묘하다.

- 작가노트 중에서-

## ARTIST'S NOTE

Long years ago I entered nature, fascinated by its providence and regular repetition. I came to realize all of a sudden the patterns of water, trees, and stones. Their forms look irregular yet steadily evolve to regular shapes over time.

Animals and insects are instinctively aware that they may exist in nature and are significant in maintaining the order and laws of nature. They are in harmony with the sky, the earth, and trees, sensitively responding to a feel of day and night. They see the whole as an organism, adapting themselves to nature's order.

Animals called humans probably did like that in the beginning but now each individual collides. Humans were originally in accord with other innumerable elements. The DAKS pattern is for such contemporary men who can communicate with the past without losing their identity. That is truly a medium associat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the modern age with contemporary times. The DAKS pattern, made up of fundamental formative elements such as dots, lines, and planes, reminds of the harmony of an animal's regular, repetitive markings or digital pixels, a futuristic image. The power of patterns, aesthetics of rule and repetition appears so subtle and great.

- By Kim Bien Hun



Panthera tigris altaica /  
Amur tiger, 67x100cm,  
C-프린트, 플라시글라스에  
나무 프레임, 2008



Anser anser /  
Graylag goose,  
77x110cm,  
C-프린트, 플라시글라스에  
나무 프레임, 2008



E. burchelli boehmi /  
Egus, 77x100cm,  
C-프린트, 플라시글라스에  
나무 프레임, 2008



Panthera leo / Lion, 150x100cm,  
C-프린트, 플라시글라스에 나무 프레임, 2008